

김성종의 『제5열』

— 유신체제하의 자기검열과 그 균열의 한 징후—

최애영*

1. 추리소설, 긴급조치시대의 아이러니
2. 억압을 넘어 상상의 유희로
 - 2-1. 소설의 안과 밖— 환상적인 배경확장
 - 2-2. 죽음의 공포와 유희의 대위법
3. 균열
 - 3-1. 자기검열
 - 3-2. ‘제5열’, 存而不在 그리고 균열
4. 1980년대를 향한 열림

국문요약

군사독재, 긴급조치, 자기검열의 시대인 1970년대 유신체제하에서 추리소설의 토착화에 성공했다는 사실은 시대적 아이러니이다. 본 논문은 70-80년대의 대표적인 추리작가 김성종의 『제5열』(1978)을 중심으로 그러한 아이러니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또 그것이 그 시대 대중의 어떤 측면을 반영하고 암시해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70년대 한국에 추리소설이 뿌리내릴 수 있었던 사회문화적 배경을 살펴본 다음, 때로는 선행 작품인 『최후의 증인』(1974)과 배경을 비교하면서, 억압적 체제 속에서 어떻게 추리소설이 유희기능을 수행하는 대중장르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양상을 살펴본다. 그 다음, 유신말기에 쓰인 『제5열』에서 자기검열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서사진략에 내포된 균열이 어떤 독서효과를 생성하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70년대 말 자기검열 속으로 위축되었던 대중은 새로운 개인의 주제적 발현을 꿈꾸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주제어: 자기검열, 추리소설, 유신체제, 김성종, 『최후의 증인』, 『제5열』)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1. 추리소설, 긴급조치시대의 아이러니

한국의 1970년대는 벽두부터 매우 암울한 사건들로 얼룩졌고, 그 과정은 그 시대가 감당해야 할 정치적 운명의 의미심장한 예언과도 같은 것이었다. 1970년 5월 『사상계』에 게재된 김지하의 시, 「오직」이 ‘필화사건’으로 비화되었고, 같은 해 11월에는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전태일이 기계가 아닌 인간임을 선언하고 노동법 개정을 외치며 분신했다. 이렇듯 불안하고도 강압적인 박정희정권은 계엄령을 동원한 유신체제의 구축으로 본격적인 독재체제로 굳어졌다. 이후 70년대의 나머지는 1974년 1월의 긴급조치 제1호에서 이듬해 5월의 제9호에 이르기까지 체제에 대한 저항을 분쇄하기 위해 내려진 일련의 폭력적 통제수단의 지속적인 발동으로 말미암아¹⁾ 대부분의 한국국민은 생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극도의 억압에 짓눌려, ‘자기검열’ 속으로 움츠린 채 숨죽이며 살아야 했다. 그러는 가운데 유신체제는 이른바 ‘YH사건’으로 집약되는 노동자들의 농성과 재야지식인들의 정치적 저항에 대한 폭압으로 점철되었고, 군사독재체제의 위기는 결국 1979년 독재자의 급작스런 죽음으로 일단락 지어졌다.

그런데 바로 이 유신체제 아래에서 산업화의 길에 들어선 한국의 현실에 뿌리내린 이른바 ‘한국적 추리소설’이 마침내 정착했다.²⁾ 본격문학 작가들이 추리소설의 기법을 동원하는가 하면³⁾ 추리소설을 시도하는 작가

-
- 1) 유신헌법 제 53조에 규정된 대통령 긴급조치권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무제한으로 제한하는 초헌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고, 긴급조치 제 9호는 1979년 12월 8일에야 해제되었다(마인섭, 「유신헌법의 통치행태와 중화학공업화 : 정권의 사회적 기반과 통제메커니즘」,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 22 n°2,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0, 111-146쪽).
 - 2) 추리 탐정소설이 50-60년대 한국사회에 정착하지 못한 사정에 관해서는 이정옥, 「1950-60년대 추리소설의 구조 분석」, 『현대문학이론연구』, vol. 15, 현대문학이론학회, 2001, 183-202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 3) 이 시대의 본격문학작가들 가운데 추리서사기법을 동원한 대표적인 작가는 이

군이 형성될 조짐을 보이며, 해방이후 힘겹게 유지해오던 명맥을 이을 발판을 다진 것이다. 특히 1974년 1월, 한국일보 창간20주년기념 공모에 당선된 김성종의 『최후의 증인』은 추리문학을 특별히 겨냥하지 않은 대규모의 작품공모에 당선된 소설이라는 점에서 한국 추리문학의 의미심장한 결실로 간주된다.⁴⁾ 억압이 극에 달하고 유교적 가치관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며 순응이 생존의 수단이자 미덕으로 여겨지던 때,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사고활동이 개인에게 유희의 도구가 되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진실을 겨냥하며 사고의 유희를 즐기는 한국적 추리문학의 토대가 바로 그 시대에 마련되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아이러니는 또 다른 아이러니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시대의 주목받던 신진작가이자 80-90년대 독보적인 추리작가로 활약하게 될 김성종의 작품들에 나타나는 서사전략에 있다. 즉 유신체제하에 발표된 그의 추리소설, 『최후의 증인』(1974), 『제5열』(1978), 『부랑의 강』(1979)이 모두 주인공의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이다.⁵⁾ 그 죽음의 유

청준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애순의 석사학위논문 『이청준 소설의 추리소설적 구조 연구』, 고려대학교 2000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 논문에 거론된 작품들은 대개가 60년대 말부터 70년대에 두루 발표된 것들이다.

- 4) 이 점은 한국추리문학의 흐름을 지켜본 80년대 저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이미 합의된 사항으로 보이며(1984년 3월 15일자 『매일경제신문』 기사, 「추리소설 붐이 인다」, 1987년 1월 10일자 『경향신문』 기사, 「국내 추리문학 기지개」 등 참고, 김성종은 한국추리문학의 독보적 작가로서 입지를 굳힌 듯이 보인다. 이 장르의 문학이 당시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대중문학으로서 70년대 후반, 일간지 연재를 통해 그 토대를 마련한 만큼 저널리스트들의 의견이 여기서 나름 의미를 띤다고 하겠다.
- 5) 『제5열』은 1978년 『日刊스포츠』에 ‘추장’이란 가명으로 연재된 다음, 같은 해에 남도출판사에서 발행되었다. 백휴의 『김성종 읽기』(남도, 1999)에 따르면, 김성종은 1979년에 『Z의 秘密』이란 제목의 추리소설도 명지사에서 출판했는데, 남도 출판사의 ‘김성종 추리문학전집’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그는 「어느 창녀의 죽음」(『현대문학』 19권 6호, 현대문학사, 1973.06) 등을 비롯한 단편들 속에서도 추리기법을 동원하고 있으나, 1977년에 작품집 『어느 창녀의 죽음』으로 묶어지는 이 작품들은 본격소설과 추리소설의 경계에 머물러 있다

형은 다양하다. 먼저 세 작품 가운데 마지막 것은 자살하는 자가 남편의 情婦를 살해한 범인이라는 점에서 추리소설의 전형을 벗어나지 않는다.⁶⁾ 반면, 앞선 두 작품은 범인추적의 중심에서 맹활약을 펼쳤던 수사관의 죽음이 이야기의 끝을 장식한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첫 작품에서는 주인공 수사관이 자살한다. 그의 죽음은 6.25 전쟁부터 무려 20여 년 동안이나 은폐되었던 진실의 무게에 짓눌린 개인의 왜소함을 드러내고, 역사의 상처 앞에서 개인이 무기력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시대 한국사회의 암울한 한계상황을 암시하는 징후로 읽힌다.⁷⁾ 진실규명의 주체이자 그 모든 불행의 ‘최후의 증인’인 오병호의 자살은 수사가 끝나고 범인이 체포된 다음 추리의 틀 바깥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추리서사 고유의 특징과 관련하여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진실규명이 그토록 허무한 절망과 비애를 낳는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그러나 『제5열』은 상황이 좀 다르다. 이야기가 진행되는 내내 치열한 추격전을 벌였던 국제급 전문킬러에 의해 수사관이 마지막 순간에 타살

(송명희, 「김성중의 초기소설 연구」, 『한국문학비평과 이론』 제37집, 한문비, 2007, 301-327쪽).

- 6) 토마 나르스작은 추리소설의 목적은 범인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것에 있으며, 체포하는 경찰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이야기를 늘어놓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애거사 크리스티의 작품에서는 범인이 흔히 자살하는 쪽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예로 든다(김중현 옮김, 『추리소설의 논리』, 예림기획, 2003, 235쪽).
- 7) 오병호의 자살에 관해 박유희도 비슷한 해석을 내리고 있다. 그에 따르면, 오병사의 자살은 “이성적으로 현실을 대하는 사람은 발붙일 곳이 없었던 1970년대의 현실을 드러내는 한편, ‘양심’과 ‘감장’이라는, 한국 추리를 추동하는 에너지가 개인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현실과 직면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폭발하는지를 보여준다”(「한국 추리서사에 나타난 ‘탐장’ 표상 - “한국추리서사의 역사와 이론”을 위한 시론」, 『한민족문화연구』 제 31집, 한민족문화학회, 2009, 427쪽). 필자는 그의 의견에 동의하며, 그 시대의 추리주체의 운명을 정치상황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을 좀더 발전시켜나가고자 한다.

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기이함은 범상치 않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소설의 최종승리자는 거대한 범죄 집단의 음모를 예견한 대가로 피살된 아버지의 원수를 기필코 갚겠다는 지극한 효성과 증오심에 불타는 수사관 최진이 아니다. 최종승리는 기성질서에 의해 지지받는 정의의 편이 아니라 살인기계 다비드 김의 것이다. 물론 최진의 맹활약 덕택으로 사악한 집단의 핵심인물은 제거되고 질서는 회복되며 킬러는 쫓기듯 한국을 떠난다. 이 이야기가 거기서 멈추었다면 그는 승리자가 되었을 것이고 회복된 질서는 행복했을지도 모른다. 그 추리주체의 죽음은 킬러와의 계약을 어기면서까지 그를 추적한 대가로 치러졌다는 점에서 문제를 던진다. 여기는 계약과 냉철함이 관건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냉혈한은 효성이 지극한 인간미를 지니고 있다. 최진의 대척점에서, 그는 자신을 일본남성의 사생아로 낳아준, 가난에 찌들고 정신병원에서 굶어 죽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그녀의 무덤에 매일 꽃을 바치게 하는 지극한 효심을 품고 있다. 그 시대 최고의 도덕적 가치로 받들어지던 효심이나 인간적인 감정을 살인기계도 갖고 있다는 사실은 그와 동일시되는 것에 대한 거부함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거둔다. 어쩌면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소설에 어떤 균열이 생겨나는 것은 아닐까.

추리소설을 읽으며 독자가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가 정의의 편에 서있기 때문은 아니다. 독자가 동시에 범죄자의 편에 서기도 한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수사관과 범죄자의 대립이 팽팽하고 극적일수록 독서의 흥미가 증대된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서사의 중심이, 따라서 독서의 중심이 은연중에 범죄자로 이동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소설의 주요 인물들의 묘사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인물이 바로 다비드 김이라는 점은 독서효과의 측면에 관심을 갖는 이에게 매우 시사적이다. 달리 말해 『제5열』의 독서를 마치는 순간에 어떤 통

쾌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진실을 파헤쳤다는 지적 유희의 충족감보다는 어쩌면 다비드 김의 최종승리에 대한 동일시가 더 큰 원인일 수 있다. 요컨대 추리소설의 독서효과는 수수께끼의 미로를 파헤치고 비밀을 간파했다는 지적 유희의 즐거움과, 범죄자에 대한 동일시에 내재된 어떤 파괴 욕구와 그에 따른 거부함의 해소의 혼합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성종의 『제5열』의 비극적 결말이 내포하는 아이러니는 유신 체제라는 독특한 시대적 배경과 만나 우리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이것이 그 시대 한국인들의 내면에 은밀하게 감춰져 있던 어떤 균열지점을 짚어줄지도 모른다.

여기에 『제5열』이 지니는 또 한 가지 의의를 밝혀야겠다. 그것은 이 작품이 그 시대의 정치 사회 현실을 잘 반영하면서도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유희기능을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한 70년대의 대표적인 본격 대중추리소설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이 작품을 단순한 대중적 소모품이 아닌 하나의 중요한 시대적 징후로 바라볼 근거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5열』을 중심으로, 때로는 『최후의 증인』과의 비교를 병행하며, 억압적 체제 속에서 표면에 쉽게 드러나지 않았을 그 시대의 균열을 소설 공간 속에서 추적하고 그 의미를 대체로 문학사회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해보기로 한다.⁸⁾ 이를 위해 먼저 추리소설이 붐을 일으키게 되는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살펴보고, 그러한 배경이 작품 속에서는 어떻게 전개되며 서사구성요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유희기능을 수행하는 데 기여하는지, 마지막으로 그러한 요소들을 매개하고 조직하는 서사전략의 측면을 살펴보면서 그러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일으키는 독서효과를 약간의 정성 분석적 관점을 가미하여 분석해보기로 하겠다.

8) 김성종, 『최후의 증인』(1974) 上下, 도서출판 남도, 1993, 『제5열』(1978) 1 2 3, 도서출판 남도, 2009. 김성종 작품의 인용문 출처는 전자를 A 후자를 B로 약호하고, 괄호 안에 볼륨 번호와 페이지 숫자를 단순 표기한다.

2. 억압을 넘어 상상의 유희로

2-1. 소설의 안과 밖- 환상적인 배경 확장

6.25 전쟁을 겪은 지 거의 한 세대가 흐르는 동안 한국사회는 질서가 복구되고 치안도 안정되었다. 1968년 주민등록제 실시로, 개인, 직장, 마을 단위의 검문과 단속을 통한 규율 효과가 대폭 강화되자 병역기피의 통제는 물론이고 범죄자 검거율 또한 향상된 것이다.⁹⁾ 그리고 그사이 장르의 이름이 ‘탐정’에서 ‘추리’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70년대 한국의 현실에는 어울리지 않는 인물인 탐정을 폐기하고, 유능한 경찰이나 특별수사관의 활약을 부각시키는 형태로 서사의 면모를 쇄신하는 발판이 되었다. 한편, 고등교육에 대한 열의가 확산된 데다 베이비붐 세대가 성장하면서 지적 호기심을 가진 독자의 수가 늘어났고¹⁰⁾, 청산되지 못했던 역사의 흔적들이 변전하며 무르익어, 한국사회는 복잡하게 얽힌 사건들을 만들어 낼만한 시기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산업화로 인한 도시의 팽창과 인구집중으로 군중 속의 익명성이 확보되었으며, 범죄자들이 배회하기에 적

9) 신병식, 「박정희 시대의 일상생활과 군사주의 -징병제와 ‘신성한 국방의 의무’ 담론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통권 72호, 한국산업사회학회, 2006, 148-172쪽 참고

10) 1985년 8월 10일자 『동아일보』 기사, 「오싹한 여름, 추리소설 잘 팔린다」에 따르면 추리소설의 주된 독자층은 중고생 및 20, 30대의 젊은 남성들이다. 70년대 사정 또한 이 사실에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참고로, 1975년에는 영문학자 이기형과 황중호 등의 11명의 남성대학교수들끼리 ‘미스터리 클럽’을 발족하고 『미스터리』를 발간한다(1975년 1월 18일자 『경향신문』 기사, 「열올리는 추리문학」). 1979년에는 신인추리작가 발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목적으로 대학교수와 작가 등 20여명이 모여 ‘한국추리작가협회’를 결성하게 되는데, 여기에 가담한 대표적인 작가들로 김성중과 현재훈 등이 꼽힌다(1979년 12월 12일자 『동아일보』 기사, 「뿌리내리는 추리문학」). 한편, 1978년 5월 10일자 『경향신문』 기사, 「推理소설, 韓國學분야 文庫 人氣 높아」에서 100권의 단행본 발간을 겨냥한 ‘河書推理選書’ 소식과 1979년 4월 9일자 『동아일보』 4면의 동서추리문고 100권 간행 소식은 『제5열』이 연재되던 당시에 추리소설의 붐이 일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절한 침침한 미로도 생겨났다.

다른 한편으로 기업의 해외진출과 무역을 통한 경제적 확장과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통한 국제질서로의 편입은 외부세계를 인식의 틀 안으로 받아들이고 한국을 좀더 넓은 세계 속에 위치시킬 수 있도록 한국인들의 시야를 열어주었다. 게다가 일간신문뿐만 아니라 라디오, TV 보급의 확대¹¹⁾가 국민으로 하여금, 비록 제한적이기는 했겠으나, 사회를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인식대상으로 의식하게 하는 효과를 거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한국인들에게 상상력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허구세계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 사실성의 차원에서 작자에게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효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양한 외부세계의 존재가 인식범위에 막연하게나마 들어왔을 때, 허구세계가 현실과 어느 정도 괴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개연성으로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는 허용범위 또한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변화된 사회 문학적 배경은 특히 『제5열』에서 뚜렷이 관찰되는 데, 선행 작품인 『최후의 증인』과 비교했을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먼저 『최후의 증인』은 6.25 전쟁 당시 빨치산에 가담했거나 동원되었던 비극적 역사에 깊이 뿌리내린 희생과 원한과 저주를 다루고 있다.¹²⁾ 이에

11) 김창남의 『역사비평』, ‘유신문화’의 이중성과 대항문화, 통권 32, 역사비평사, 1995, 121-132쪽이 제시하는 라디오, TV 보급 실태조사표를 보면, 1970년대 매스미디어의 보급이 엄청난 속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그가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1970년에서 1979년 까지 라디오 보급은 3.7배, TV 보급은 무려 13.5배가 늘어났다. 특히 인구 천 명당 TV 보급대수는 1970년 13대에서 1975년~1977년 사이에 53, 73, 96대로 점차 늘어났다. 특히 1978년에서 1979년 사이에는 108대에서 무려 151대로 수직상승한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삶의 패턴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김성중의 초기 두 작품, 『최후의 증인』(1974)과 『제5열』(1978)의 배경의 차이에서도 느낄 수 있다.

12) 방인근은 6.25 당시의 지리산 좌파토벌과 관련된 역사적 배경을 한국 추리소설의 흥미로운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探偵小説論』, 『文藝創作講座. 小説研究』, 서라벌예술학교출판, 1956, 78쪽).

따라 이야기의 배경은 주로 지리산자락에 위치한 시골마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경찰관 오병호는 하루에 겨우 한두 번 운행하는 시외버스를 타거나, 질척거리는 진흙길 몇 십리를 걸기도 한다. 그렇다고 오형사가 헤매는 서울의 모습이 시골 풍경보다 더 복잡하지도 않다. 그는 만나야 할 증인들을 서울에서조차도 어렵지 않게 찾아낸다. 그가 서울의 어둠 속을 헤집고 다닐 때에도 그 무대는 술집 잡부들이 모여 있는 청계천 뒷골목이거나 달동네이고, 그가 마시는 술은 그저 이름 없는 술일뿐이며, 숙소는 허름한 여관방이거나 서울 한 구석의 조용한 호텔이고, 승용차는 친구인 기자가 소속해있는 신문사의 지프차나 고정간첩 한동주 소유의 자가용한 대가 전부이다. 이 소설 속에서는, 『제5열』에서처럼(비록 경제성장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과장된 면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고층빌딩이 즐비하고 자동차들이 질주하는 화려한 면모 뒤로 음침한 뒷골목이 존재하는 대도시 서울을 상상하기란 불가능하다. 물론 『최후의 증인』과 비교했을 때 『제5열』에서 관찰되는 배경과 색채의 전반적인 변화가 주제자체에서 초래된 면도 있으므로, 두 작품 사이에 느껴지는 변화를 모두 경제규모의 변화로만 환원시킬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에서 한국사회, 특히 서울의 모습에 느껴지는 확연한 차이를 4년간의 경제적 변화를 무시하고 설명하기는 힘들 것이라 생각한다.

과연, 『제5열』은 국제 범죄 집단의 국가전복 음모를 파헤치는 이야기인 만큼, 공간적으로나 경제적 측면으로나 이야기의 규모가 엄청나게 방대하다. 먼저, 성장한 경제규모의 측면을 살펴보자. 『최후의 증인』에서 경찰지위를 상실당할 위기 속에서 증인들을 찾아 돌아다니는 오병호의 궁색한 모습이나 그가 만나는 증인들의 초라한 모습과는 달리, 『제5열』의 경우는, 수사관이나 범죄 집단 모두 매우 호화롭다. 특히 일본 폭력집단인 ‘국화’의 비호 아래 군수산업체와 결탁한 ‘신일본’이라는 극우세력의 지원을 받고 ‘군국’과 ‘대동아 건설’을 주장하는 서울의 이 수상쩍은 단체,

‘대동회’는 불과 서너 달 사이에 무려 일조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을 긁어모으려는 엄청난 음모를 꾸민다. 은행에서는 이제 “온라인” 거래가 가능한데, 이는 자금의 흐름이 그만큼 확대되고 빨라졌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돈의 위력”은 범죄 집단에게든 정보를 사려는 수사관에게든 무시할 수 없는 실체로 작용하고, TV는 주요 정치홍보 수단으로 정착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도시의 팽창과 국제교류의 확대는 인물들의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그들의 삶의 이력 또한 국제적으로 만들었다. 먼저 수사관 최진은 영어에 능통하며, 이 사건에 뛰어들기 전까지는 달리벌이를 위해 아프리카로 파견근무를 나갈 계획에 있었다. 그리고 국가안전국 국장이나, 북한과의 준전시체제 속에서 새로이 대통령으로 선출될 장연기 후보는 미국에서 유학한 엘리트들이다. 현대한국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고속도로를 질주하거나,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도쿄로, 홍콩, 등지로 날아다닌다. 그리고 서울 또한 국제도시의 면모를 띠고 있다. 전문킬러 다비드 김은 영어와 일본어에 능통하며, 20층 최고급 국제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비프스테이크를 즐겨 먹고, 우두머리들은 코냑을 마시고, 청계천 뒷골목 술집잡부가 아닌 늘씬하고 관능적인 콜걸을 초호화 호텔특실로 부른다. 호텔이름들도 퍼시픽, 킹, 콘티넨탈, 등 모두 서양식이다. 이처럼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춘 서울에는 프랑스와 홍콩 국적의 국제경찰, ‘인터폴’들이 상주하고, 그들이 주로 모이는 서울의 장소는 “스칸디나비아 클럽”이며, 한국 수사관들은 수시로 국제전화를 주고받는다.

부연하자면, 전문킬러 다비드 김의 경우, 스웨덴에서 반전운동에 가담했다가 외인부대에 입대하여 아프리카 신생제국들의 내전에 뛰어들었으며, 서울에서 노출된 신분을 다시 은폐하기 위해 도쿄에서 꺼진 콧잔등을 높이는 성형수술을 받는 등, 그의 삶 또한 그야말로 국제적이다. 그러나

황당하기까지 한 이런 삶의 경력은 그의 삶에 각인된 한국의 현실이 교묘하게 아말감 되어 독자를 적당한 현실감 속에 머물게 한다. 그는 한국에서 태어나 유태계 미국장교에 의해 입양되어 시카고로 갔다가 베트남전쟁에 참전하게 되는데 이러한 삶의 이력은 한국 현대사를 요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인근이 50-60년대 한국사회가 방대한 스케일의 이야기 거리를 쉽게 제공해주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던 점¹³⁾ 생각하면 한국의 현실을 바탕으로 이처럼 거대한 규모의 이야기를 꾸밀 수 있었다는 사실은 가히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물론 1979년의 일인당 GNP가 1597달러에 불과했던 현실 속에서 일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가 당시의 독자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리는 만무하지만, 국민총화를 통한 선진국으로의 도약이라는 집단 理想의 최면에 걸린 한국인들에게 이러한 규모의 상상은 꽤 환상적이라 할 것이며, 공간적 개방성은 해외여행의 현실적 제약과 정치적 억압 속에 움츠리고 살아야 하던 독자들에게 꿈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점들이 부추겼을 상상적 쾌감이 어떠했을지는 당시 난국에 처한 국내외 정세를 떠올리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당시의 한국사회는 남북간의 극렬한 긴장관계가 빚어낸 고정관념, 조총련에 의한 대통령저격미수사건과 대통령부인 피격사건, 땅굴사건 등의 충격들과 베트남전쟁, 인도차이나 국가들의 공산화 등, 혼란스런 대외정세 속에서 극심한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국민에게 출구 없는 억압적 체제 속에서 입을 닫고 생각을 멈추고 현실에 순응하며 살도록 압력을 가중시켰다. 이렇게 볼 때 적당히 비현실적인 이야기는, 특히 정치적 억압이 극심한 현실에서는, 오히려 검열을 피할 수 있는 알리바이를 제공해주므로 대중성을 확보하기에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때 이야기가 적

13) 방인근, 「探偵小說論」, 『文藝創作講座 小說研究』, 서라벌예술대학교출판, 1956, 78쪽.

당히 비현실적이라는 것은 또한 적당히 현실적이라는 말과 상통한다. 즉 소설은 한편으로는 소설 밖의 현실이 끊임없이 소설 속에서 환기시킴으로써 독자를 긴장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긴장만큼의 공감을 일으키며 독자를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는 흡인력을 얻게 된다.

요컨대 경제규모의 확대로 인해 복잡다단해진 사회는 불안한 국내외정세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러한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고의 유희를 즐길 거리들을 적극적으로 찾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이 시대에 일기 시작한 추리소설의 붐은 새로이 일상생활을 파고들어온 텔레비전 드라마나 쇼 프로그램 혹은 『선데이 서울』 등의 유희거리와 경쟁할 수 있는 또 다른 유희의 모색으로 해석된다. 추리소설이 일간지를 활용한 것은 군중 속에서 분리된 개인적 공간을 확보하려는 욕구의 대응으로 보인다.¹⁴⁾ 즉 대중은 독서라는 고립된 공간 속에서 허구적 범죄와 추적의 유희를 내밀하게 즐기면서, 현실 속의 억압과 불안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위안, 다시 말해 생각과 표현의 자유가 엄격하게 통제되는 폭압적 현실 속에서 사고활동에 상상적 출구를 찾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유신시대의 추리소설은 경제성장과 연동된 상상력의 변화와 유신체제의 긴급조치의 압박 속에서 형성된 하나의 유희로서의 문학적 타협물이라 하겠다.

2-2. 죽음의 공포와 유희의 대위법

앞서 보았듯이 『제5열』은 일본 극우 군국주의 세력이나 6.25전쟁, 해외 입양, 베트남 참전, 북한과의 적대관계, 변화한 서울의 모습, 당시 경

14) 이러한 측면은 한국추리소설이 성적 코드를 매우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신문연재 추리소설은 공적인 공간에서(참고로 서울 지하철 1호선은 1974년 8월에 완전 개통되었다) 독서라는 지적 쾌락을 겸하면서 『선데이 서울』과 유사한 상상력의 기호를 충족시키는 주요 수단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프로이드에 따르면, 성적 호기심은 애초 모든 지적 호기심의 무의식적 원천이다.

제의 중요한 화두라고 할 달러벌이, 등 역사나 사회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현실까지도 매우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 범죄를 부추기는 원동력은 권력에의 야욕이며, 그것이 발현되는 양상은 정경유착과 폭력조직의 합세로 요약된다. 그 시대 정치현실과 관련하여 정치권력, 자본권력, 물리적 폭력의 연계에 대해, 현실속의 군사집단이 소설속에서는 폭력집단으로 변모했다는 것 외에 새삼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그런 만큼 독자는 이야기의 구성요소들의 시대적 의미를 충분히 파악했을 때 이야기의 묘미를 좀더 잘 읽어낼 수 있다. 그러나 이 소설이 유희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시대적 반영 때문이기 보다는 상상적 요소들이 그러한 시대적 요소들을 잘 엮어주었기 때문이다. 물론 상상적 유희가 벌어지는 곳은 추리소설의 본질적 요소들인 범죄내용과 수법 그리고 수사방식에 있다. 흥미로운 것은 그러한 허구적 요소들이 이면에서 매우 은밀하게 현실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그것들이 어떻게 현실을 연상시키면서도 유희의 기능을 수행하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문제의 거대 조직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금 조달수단으로 꾸미는 구체적인 범행행위들은 다음과 같다. 한국 내 대마초 제조 및 판매망의 완전장악, 마약밀매에서, 달러벌이를 위한 해외인력수출이란 경제적 명목으로 젊은 여성 수십만 명을 일인당 이천달러로 미국 마피아에게 팔아넘긴다는 해괴한 발상에 이르기까지, 범죄자들은 천연덕스럽게 천문학적 숫자를 머릿속에 떠올리며, 이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백여 명의 전문킬러들을 동원하기까지 한다. 이 범행들은 유신체제의 억압적이고 살벌한 사법 잣대를 연상시키는 매우 상징적인 범죄이다. 1976년 3월 정부는 ‘국민총화체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로서 마약 및 대마초 취급, 소지, 혹은 흡연으로 적발된 자들은 10년 징역형에서 최고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는데, 이것은 목숨을 내걸고 공산당과 대

치해야 하는 위기 속에서 대마초나 마약과 같은 퇴폐적 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최고통치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¹⁵⁾ 그런데 독자의 머릿속에는 긴급조치 이후 대마초 흡연 연예인들이 대거 구속되고 자격정지당한 기억이 남아있다. 다시 말해 이 소설 속의 대표적인 범죄는 당시 젊은 층에 붐을 일으키던 대중예술의 억압을 떠올리게 할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죽음의 위기까지도 암암리에 내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유의 억압, 자유로운 에너지 발산의 억압의 상징으로 읽힐 수 있다.

억압적인 요소는 범죄의 수법에서도 드러난다. 『최후의 증인』에서는, 범인이 아버지의 20년간의 억울한 옥살이에 관한 진실을 알려준 고정간첩 한동주의 사주를 받아, 자신에게서 아버지를 박탈하고 아버지에게서 행복한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원흉들을 광기의 상태에서 무참하게 살해했다는 점에서, 살인 수법과 도구 또한 일차원적이고, 텍스트의 표현을 반복하자면, “엽기적”이며, 한동주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는 농부 박용재를 살해하는 수법도 둔기와 낫을 사용하는 마찬가지로의 “엽기적” 행위로 묘사된다. 이 소설에서 사용되는 신식무기는 기껏해야 허공을 파열음으로 뒤흔드는 권총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은 이미 전쟁 당시 빨치산대원들이 자신들의 소재지를 알리는 것이 두려워 권총을 자제하고 둔기를 사용했던 점을 미뤄볼 때 그 범죄행위의 기술은 여전히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다비드 킴은 근거리에서는 해부학적 지식을 이용해 관절을 부러뜨리고 급소를 때리는 “깨끗한” 방식을 사용하거나 소음권총을 사용할 뿐, 둔기나 칼처럼 신체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는 일절 하지 않는다. 원거리의 경우, 그는 망원렌즈와 고성능 발사 장치를 장착하여 목표물을 정확히 조준한다. 한마디로 무지막지한 폭력배들에 의하든 전문킬러에 의하든 살인은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행해진다. 소리 소문도

15) 「朴대통령 大麻草 흡연자 最高刑을」, 『경향신문』, 1976.02.02, 1면. 「大麻草所持에 死刑까지」, 『경향신문』, 1976.03.03, 1면.

없이 일순간에 죽는 것이다. 독서가 진행되는 내내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범죄는 결국 개인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이며, 이로 인해 여기에는 정치적 해석이 이중적으로 끼어들 여지가 있다. 즉 하나는 소설 자체에 대한 당국의 정치적 해석이 그것이며, 다른 하나는 독자들의 의식적, 무의식적 해석인데, 이러한 위험성과 위기감은 일차적으로는 작자의 ‘자기검열’을 통한 서사전략에 의해 극복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장으로 미루고, 우선 이러한 해석에 내재한 불안이 어떤 식으로 극복되고 유희기능을 수행하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체제를 수호하려는 강력한 독재체제 아래에서, ‘자기 검열’의 시대에, 범죄자들만큼이나 강력한 수사관의 활약은 안정감 이상으로 공포감을 심어줄 수 있다. 수사에 동원되는 수단은 무엇보다 盜聽이며, 특별수사관 최진은 범죄자의 미행을 따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변장을 하고 서울 시내를 활보하다 어느 뒷골목의 허름하고 특색 없는 빌딩으로 숨어들어간다. 어디에 수사관이 숨어있는지 알 수 없으며, 언제 어디서건 ‘나의 언행이 도청되고 ‘나의 행동이 감시될 수 있다는 불안이 독자의 내면에 조장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을 극복하고 독서의 쾌락을 보장해주는 방법은 대체로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과장을 통한 유머이다. 이것은 독서 속으로 현실이 지나치게 개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안과 긴장을 견딜 만한 수준으로 축소시키고, 독자들이 안심하고 독서에 몰입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매춘과 인신매매와 외화벌이의 조합에는 약간의 빈정거림도 없지 않은데, 정권의 이념에 화답하는 외화벌이와 강간에 버금가는 인신매매가 폭력조직과 결합되는 범죄형태는, 정부 주도의 일방적, 강압적 경제개발과 노동자 사이의 관계를 그러한 반인권적 폭력의 형태로 재해석하게 할 여지를 제공하므로 실은 매우 민감한 내용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범죄는 엄청난 수량의

인신매매와 거래액을 설정함으로써 범죄 자체를 만화적으로 만들어버린다. 이러한 규모의 과장은 앞서 조 단위의 거대한 수치에서도 보았듯이 소설 곳곳에 등장한다. 다른 한 예를 들면, 이 소설에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전쟁을 부추김으로써 미래의 남한정부에 대한 장악을 더욱 확고히 다지기 위해 북한에게 무기를 밀매하는데, 이들이 거래하는 초현대 무기들의 이름은 전쟁의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망라된 무기들의 종류와 거래규모가 너무도 방대하여 독자에게는 현실적이기보다는 오히려 공상적 게임처럼 들릴 소지가 다분하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컴퓨터”로나 식별이 가능할 정도의 정교한 위조지폐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 정교함의 수준 자체가 과장되었을 뿐더러, 일반인들에게는 80년대에나 가깝게 적극적으로 알려질, 아직은 비현실적인 ‘컴퓨터’가 과학적 정확성의 상징으로 등장한 것도 이 소설을 환상적으로 만드는 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이 소설이 유희기능을 수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 선정성이다. 『제5열』이 국제 범죄 집단의 국가전복 음모라는 꽤 민감한 정치적 주제를 다루는 만큼, 수시로 끼어드는 선정적인 장면은 범죄도구의 폭력성과 묘하게 겹치면서 범죄서사와 조사서사를 모두 성적 환상으로 몰들임으로써 정치적 관점의 해석이 의도적으로 개입될 여지를 차단하는 방어기능을 수행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소설에서 남성의 성기는 때로 “무기”로 불리며, 이야기의 핵심 인물인 최고의 전문킬러 다비드 킴을 “상장”하는 것도 바로 그의 성기이다. 그리고 정사장면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일종의 이기고 지는 싸움처럼 묘사된다. 다비드 킴의 별명이 ‘도살자Butcher’이며, 일본 오사카의 창녀 소굴이 “인육시장”에 비유되는 점을 떠올린다면, 그의 직업의 폭력성과 매춘이라는 직업의 선정성이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다비드 킴은 Z의 시체를 보았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걸을 살해하는데, 화자는 그의 눈을 통해, 그녀의 “노란 삼각팬티에 가려진 하체의 볼륨이 유난히도 선정적으로 보

였다”(B, V3, 365) 라고 서술한다. 죽은 쥐들과 피투성이 범죄자의 시체 옆에 부각된 선정성은 질서의 위기가 초래한 데카당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처럼 이 소설에서 선정성은 폭력성이나 죽음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는데, 그러한 불안이 성적 호기심으로 치환됨에 따라 유희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제5열』은 불과 4년 전에 발표된 『최후의 증인』에 비해, 사회 문제들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으면서도, 유희기능이란 측면에서 확연한 발전을 보여준다. 물론 두 소설의 집필 배경자체가 다르긴 하다. 첫 번째 작품이 대규모 소설공모에 응했던 것인 반면, 그 후속작품은 처음부터 일간지연재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유희적 성격과 통속성의 수준이 질적으로 다르다. 선행 작품은 이야기의 어조가 무겁고 회의적이며 진행이 느린 반면, 후속 작품은 훨씬 더 많은 폭력이 전개되면서도 어조는 가볍고 이야기의 전개는 빠르고 거침없으며, 선정적인 요소들이 다분하다. 특히 이 마지막 요소는 말초적인 호기심을 자극하여 독자들을 끌어들이고 그들의 즉각적인 흥미를 돋우기 위한 신문연재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의 정권이 강요하던 문화적 ‘엄숙주의’는 극단적인 검열로 인해 문화 향유주체들에게 오히려 현실의 공포로부터 스스로를 유리시킬 수 있는 향락추구적인 모순된 경향을 부추기기도 했다. 이런 관점에서 선정성은 정치적 억압으로부터의 탈출구로 볼 수 있다.

3. 균열

3-1. 자기검열

정치권력의 야욕과 전복의 음모라는 위태로운 주제로 말미암아 긴급조치 시대의 『제5열』은 글쓰기나 독서에 있어서 ‘자기검열’이 매우 적극적

으로 요청되었던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이 점에 있어서 이 소설은 『최후의 증인』과 나란히 놓였을 때 아주 흥미로운 현상을 보여준다. 오병호의 수사는 이 소설의 제목자체가 환기시켜주듯, 단서와 증거를 찾는 면밀한 과학수사가 아니라 주로 증언을 통해 이뤄지는데, 진실을 말하고픈 강렬한 증언의 욕구가 조사과정에 해당하는 추리서사를 추동하고 있다.¹⁶⁾ “망각 시대”에 파묻혀 있던 진실이 살인사건을 계기로 표면화되면서, 파묻힌 진실의 기억이 솟구쳐 올라오고, 억눌렸던 목소리가 힘을 얻으며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¹⁷⁾ 이것은 ‘살고 싶으면 입 다물라’, ‘알려고 하지 말라’라는 『제5열』 속 폭력조직의 지배논리와는 확연한 대조를 이룬다. 바로 여기에 흥미로운 점이 있다. 이것을 긴급조치 이전과 이후의 차이라고 볼 수는 없을까? 한편에는 어떤 강압도 동원되지 않은 증언의 형태로 재현된,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욕망과 낯을 휘두르고 망치를 내리치는 파괴적 에너지의 맹목적 폭발과 광기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공포, 신음 한번 내지르지 못하고 강력한 무기 한 방이나 범 죄 집단의 무지막지한 폭력 앞에서 소리 없이 사라져버리는 죽음의 침묵, 게다가 반복되는 소음권총의 정적이 있다. 『최후의 증인』에서는 경찰의 폭행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반면, 『제5열』에서는 고문을 정당화하고 있다 —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을 가한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어쩔 수 없는 생리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필요악이

16) 이 작품에 대한 작가의 추리기법에 관한 분석은 정희모의 논문, 「추리기법의 서사화와 그 가능성 -김성중의 <최후의 증인>에 나타난 추리기법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vol. 10, 한국현대소설학회, 1999, 411-430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다른 한편으로 이정옥, 임성래는 이 작품은 한국 현대사에 대한 반성적 사유를 접합시켜놓았다는 점에서 변용추리소설로 취급하고 있다(『변용 추리소설의 소설적 의의』, 『대중서사연구』 제14호, 대중서사학회, 2005, 281-306쪽).

17) 손지혜는 남편 황버우가 억울한 누명을 쓰자 그를 구하기 위해 담당검사를 찾아간다. 검사의 권위적인 반응은 그녀는 “말할 자격이 없다”(A, 下, 24)는 것이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다.”(B, V3, 95) 이렇듯, 1970년대 후반의 작품에는 짙은 억압의 흔적들이 유희와 쾌락추구의 경향 속에 뒤얽혀 있다.

그렇다고 70년대 전반의 작품에 나타난 광기를 부글거리는 에너지의 자유로운 발산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범인의 광기는 진실의 충격을 감당할 수 없는 심약한 의지와 정신적 제어능력의 미약함의 소치이며 오병호의 자살에는 무엇보다 알고자 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이 깊이 작용하고 있다.

그의 슬픔은 단순한 슬픔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외로운 방랑객이 오랜 여행 끝에 고향에 돌아와 새삼스럽게 자신의 비참함과 허무함을 깨닫고는 울음을 터뜨리는 그런 모습이었다. 무엇을 찾아 지금까지 헤매었던가, 황바우도 죽었고, 손지혜도 죽었다.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어쩔 수 없는 힘 앞에 그는 더욱 패배감을 느꼈고 그래서 더욱 분노를 느꼈고 그런 나머지 절망적인 몸부림을 했다. 아아, 차라리 모른 채할 것을..... 그랬더라면 황바우도 손지혜도 살아있을 것이 아닌가. 괜한 영웅심이 두 사람을 죽게 했다. 그렇다, 나는 영웅심에 사로잡힌 놈이다. 어떻게 하겠는가. 책임을 져라. 책임을 지란 말이다. 한낱 보잘것없는 자식. 쓰레기 같은 자식..... (A, 下, 307)

결국 범죄의 배후세력이 고정간첩인 한동주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지지만, 그 앞의 주체는 국가의 안위를 위해 진실을 밝혀낸 뿌듯한 승자가 아니라, 패배자로, 쓸모없는 인간으로 스스로를 자기비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만다. 순수하기 짝이 없는 무고한 황바우와 그의 아내 손지혜를 죽게 했다는 죄책감, 법과 질서의 승리와는 무관하게 벌어지는 부조리한 인간사의 허무함이 자아내는 비애, 법이 희생자에게 어떤 위안도 보상도 줄 수 없다는 절망감은 멜랑콜리의 공허함을 낳는다. 이것은 그 시대의 정서가 얼마나 비관적이었는가를 짐작하게 해준다. 여기서 악의 근원이 국가체제를 위협하는 거대한 적대세력으로 환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규명의 의지는 한낱 개인의 맹목적인 영웅심으로 지탄받을 뿐이다.

앞의 주체는 현실에 대한 분노를 외부세계를 향해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응징으로 해소한다. ‘알 필요가 없다’, ‘이는 것이 죄다’라는 알고자 하는 욕망의 후퇴는 이 소설에서 모든 증인들의 운명이 죽음이나 광기로 귀착되고야 마는 비극적 형상화로 일관되게 나타난다. 설상가상으로 역사에 희생당한 딸과 아들은 고아가 되어, 생을 등지고 수녀원으로 칩거하거나 판단력을 잃고 정신병원에 수용되어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된다. 마치 더욱 강력한 억압이 임박했음을 예감하고 지레 겁을 먹는 형국이다. 공교롭게도 1974년 1월에 긴급조치 제 1호가 내려졌고 이 소설이 당선되었다. 이것은 자기검열의 전조라 할 것이며, 70년대 후반을 더욱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요컨대 긴급조치시대에는 자기검열만이 그 시대를 견딜 수 있는 방법이었다. 『제5열』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김성종은 자기검열의 방법으로 유신체제의 이데올로기를 작품 속에 적극적으로 펼치는 전략을 택했다. 먼저 전 국민의 존경과 절대적 지지를 한 몸매 받고 있는 수상은 오직 국가와 국민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는 인자한 인물이다. “전직 지도자들이 귀족이나 대부호 출신인데 반해 그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서(B, V1, 234) “배고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뼈저리게 체험”했고 “항상 서민들의 고통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고, 그 덕택으로 그는 “가난을 추방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B, V1, 235). 여기서 5.16 쿠데타 주동세력이 대부분 반농출신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떠올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지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평화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데 우리의 온 지혜와 노력을 경주해야”(B, V1, 247) 한다는 수상의 담화에서 어떻게 유신시대의 ‘국민총화’의 이데올로기를 듣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시대의 현실을 연상시키는 요소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소설 속의 국내외정세는 매우 위태롭다. 수상의 고뇌를 한번 엿들어보자.

국가는 현재 국내외적으로 큰 시련을 받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전운이 감돌고 있었지만 지금처럼 그 위험에 목전에 다가온 적은 일찍이 없었다. 적군은 휴전선 전역에 걸쳐 전 병력을 집결하고 있었다. 신히만 떨어지면 이 조그만 강토는 불바다가 되는 것이다.

전쟁에 대비해서 수상은 지난 10년 동안 피눈물 나는 노력을 경주해왔었다. 동맹군이 철수한다고 했을 때 그는 군이 막지 않았었다. 모든 것을 동맹국 지원에 의존하고 사고방식까지 그런 식으로 변모해 버린 세태를 그는 차체에 뜯어고쳐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것은 정신혁명이기도 했다. 이 혁명의 완수에 의해서만 국민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국가를 지킬 수 있다고 그는 믿고 있었던 것이다. 동맹군이 완전 철수하던 날 그는 홀로 밤을 지내면서 비장한 눈물을 흘렸다. (...) 떨어진 옷을 기워 입고 점심을 수제비로 때우더라도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전 국민은 일시에 호응해 주었다. 이에 힘을 얻어 그는 전쟁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 수 있었다. 이제 어떠한 계약에도 대처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가 진실로 바라는 것은 전쟁의 방지였다.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국토가 초토화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였다. 그동안 전 국민이 피땀 흘려 이룩한 경제 건설은 한줌의 재로 화할 것이고 (...) 전쟁이 일어나면 파멸이다. 다시 우리는 후진국이 되는 것이다. (B, VI, 233-234)

위의 인용문은 새삼스런 언급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백하다. 유신체제는 ‘국가주의’, ‘군사주의’, ‘경제발전’, ‘반공’의 네 가지 요소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것은 당시 대내외 상황에 대한 대처방식이다. 닉슨 행정부의 한반도 긴장완화의 요구와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철수 공약 및 인권의 교로 인해,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불신은 극에 달해 있었다. 게다가 1973년 7.4 남북공동성명은 양진영간의 입장차이로 파기되었고, 적화통일과 고려연방공화국 안을 거듭 주장하는 북한의 대남정책은 1975년 인도차이나반도의 공산화와 판문점 도끼만행사건과 맞물려 남한에 위기감을 한층 더 고조시켰다. 한편 한국경제의 구조 또한 변화를 모색해야만 하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었다. 경공업 중심의 수출전략이 한계에 이르면서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심화되었고,

지역, 계층, 도농간의 격차 또한 확대되면서 갈등을 부채질 했으며, 독재적 장기집권은 점점 더 거센 반체제 운동을 부추겼다. ‘지주국방’, ‘총력안보’, ‘총화단결’ ‘안정과 성장’ ‘국민총화’, ‘자립경제’ 등, 집권자의 연두회견에서 제시된 이러한 이념들은 그 시대의 위기상황을 압축하는 단어들이며, 위의 인용문은 이러한 사정을 요약이나 하고 있는 듯하다.¹⁸⁾

그런데 예순일곱이 되기까지 국가를 위해 사력을 다한 수상은 이제 쇠진하여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최고의 엘리트이자 경제전문가로서 국가경제개발에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 장연기에게 권력을 물려줄 계획을 세운다.¹⁹⁾ 그리고 현재의 위기상황에서는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가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내리고는 그 취지에 맞게 개헌을 발의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명령한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유신헌법의 이데올로기를 엿듣게 되는데, 그 논리는 분단 상황에서 안보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총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권력분립 대신 권력통합주의”를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을 “총화의 구현체”로 간주하고, “국민적 조정자의 지위와 국가의 존속과 존엄을 보장하는 영도자의 지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통령은 “국가적 조정자이며 헌법의 수호자”인 것이다.²⁰⁾ 소설 속의 국민은 “예상했던 대로 85%라는 찬성표를”(B, V2, 295) 개헌안에 던지며 수상에게 거의 절대적인 지

18) 유신시대의 국내외 정세와 경제상황에 대해, 진재호의 논문, 「박정희 체제의 민족주의: 담론의 변호와 그 원인」, 『한국정치학회보』 vol. 32 n°4, 한국정치학회, 1998, 89-109쪽 참고

19) 수상의 국가경영의 이념에 화답이라도 하듯, 무엇보다 당시 한국사회의 위기와 소망이 무엇인지 말해주듯, 대통령 후보 장연기는 국민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약을 내건다. 그것은 “빈부의 격차를 좁히고 수행복지제도를 강화할” 것이며,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자유스럽고 평화로운 사회 건설에”(B, V3, 12)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20) 김민배,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역사비평』 통권 32, 역사비평사, 1995, 89-103쪽 참고

지를 보낸다. 이 상황은 1975년 2월 12일에 있었던 유신헌법에 대한 찬반의 국민투표를 연상시키는데, 이때 투표율 78.8%에 찬성 73.11%의 결과가 나왔고, 이것은 1973년 제9대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지였다.²¹⁾

게다가 이 소설 속에는 한편으로는 국가가 전적인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정치적 자유의 옹호에는 국가전복의 음모를 꾸미는 세력의 불순한 동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다는 경고 메시지까지 담고 있다. 왜냐하면 ‘대동화’의 정치 슬로건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그러한 불순세력이 정치 권력화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자, S국으로 지칭되는 ‘국가안전국’의 국장은 기관의 엄정한 정치중립의 의무를 내세우고는, 그러한 주장은 “자유국가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B, VI, 254) 것이므로 결국은 “국민의 심판”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수사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데 S국장은 바로 그 불순세력의 배후를 장악하고 있는 최고의 핵심인물 Z이다. 게다가 이 인물이 결탁하고 있는 일본제국주의의 망령을—소설 속에서 “신일본”을 외치는 신군국주의 세력은 북한의 정치적 야욕까지도 이용한다—이 모든 위기의 배경으로 설정함으로써 유신헌법의 주요 지배이념 가운데 하나인 ‘민족주의’가 서사에 정치적 안정망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렇듯, 이 소설에 등장하는 유신헌법 이데올로기의 흔적은 철저한 자기검열의 산물이다.

3-2. ‘제5열’, 存而不在 그리고 균열

그러나 이 소설이 연재되던 1978년의 한국사회의 현실은 지배 권력이 위와 같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상황이 결코 아니었다. 같은 해 12월 12

21) 마인섭, 「유신헌법의 통치행태와 중화학공업화 : 정권의 사회적 기반과 통제메커니즘」,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 22 n°2,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0, 133쪽.

일에 있었던 제10대 국회의원총선에서, 유신체제 6년의 심판을 선거 전략으로 내세운 신민당은 지지율이 공화당보다 1.1% 앞서는 결과를 거두게 된다.²²⁾ 이러한 유신체제의 위기 속에서, 아무리 그것이 대중소설에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친정부적 담론을 줄곧 반복하기만 했을까? 아니 오히려 대중소설이므로, 혹시 이 소설 어디엔가 대중의 자기검열의 균열 조짐이 들어있어서 자기방어적인 견고한 텍스트 표면을 뒤흔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당연히 그 균열은 표면에 쉽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의도적인 차원을 벗어나 독서의 상상적 효과가 발휘하는 무언의 모호한 영역 속에서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자기검열의 표피를 벗기는 분석을 요구한다.

이야기의 핵심에는 전략적 틈이 있는데, 그것은 안전의 상징과 폭력과 공포의 상징이, 달리 말해 보이는 자와 보이지 않는 자가 별개인 것처럼 존재하도록 양자 사이에 틈을 만드는 흥미로운 서사전략을 말한다. 그런데 이것이 독서 속에서 균열을 생성하게 된다. 그 효과는 한마디로 Z라는 수수께끼 인물이 텍스트의 표면에 파놓은 구멍에서 비롯한다. 그는 체제 안전의 핵심인 ‘국가안전국’의 우두머리로서, 위기의 진원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할 인물인 동시에 바로 그 진원지 자체이다. 이러한 이중성은 그의 존재방식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텍스트에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는 자는 오직 안전국장, 즉 ‘S국장’일 뿐, 그의 이면인 Z의 모습은 철저히 은폐되어있다. 이렇게 작가는 이 둘을 별개의 인물로 착각하게 만든다. Z는 오직 소름끼치도록 공포스러운 변장된 목소리로만 존재를 알린다. 그가 실제로 행동하는 장면은 통 털어 두 번 있는데, 그것은 최진의 아버지를 소음권총으로 살해할 때와 최진의 권유로 그에게 접근해간 도미어를 어느 시골 도로변의 숲 속에서 응징할 때이다. 그러나 이때조차도

22) 고성국, 「1978년 12.12 총선. 유신체제 붕괴의 전주곡」, 『역사비평』 통권 18, 역사비평사, 1992, 65쪽.

그의 모습은 묘사되지 않으며, 변장된 목소리로만 독자들에게 존재를 드러낼 뿐이다. 이처럼 철저한 미스터리로서 이야기의 한 중심에 그를 위치시키는 서사전략으로 인해, 수사의 초점은 자연 그의 정체 밝히기와 신변 확보에 맞춰진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Z는 추리의 중심에서 과학수사를 추동하는 원천이면서도, 동시에 추리서사의 규칙을 위반하게 하는 원인이라는 점이다. 그의 실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용된 난수표의 해독은 역설을 내포하고 있다. 난수표의 해독으로 그의 이름을 도출해내는 과정은 꽤 그럴 듯한 논리의 산물처럼 보인다. 그러나 난수표의 글자배열은 세균이름 PEST를 가리키는 암호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오직 네 글자의 위치만 요행히 검증되었을 뿐, 나머지 스물두 글자의 위치가 모두 확인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진은 확신을 갖고 Z를 난수표의 매우 독특한 자리에 위치시킨다. 즉 가로세로 5칸으로 배열된 알파벳 난수표에 Z는 스물여섯 번째 글자이므로 5열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다.(B, V3, 269) 난수표를 다섯 개씩 스물다섯 글자를 자르고는 “하나가 남는다”라고 두 번 외칠 때 그는 마치 Z의 진실에 다가간 듯이 흥분한다. 물론 해결해야 할 우선적인 과제는 PEST라는 영문 단어를 해독하는 것이지만, 그의 유레카는 이 단어와는 별개의 외침이다. 그리고 그는 가설일 뿐인 난수표에 의거하여 Z의 實名을 추정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논리적 비약은 최진의 오류라기보다는 글쓰는 작가의 환상이 빚어낸 거의 무의식적 산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즉 알파벳 순서대로 정연하게 배열된 난수표 속 Z의 예외적인 위치에 대한 확신은, 수사과정의 모든 정보를 내부에서부터 빨아들이는 공포의 ‘구멍’으로서, 다시 말해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내재적 블랙홀로서 ‘제5열’이란 인물의 특성을 설정한 서사전략의 여파로 생성된 환상적 산물인 것이다. 이렇듯, Z는 ‘5열’(스파이)이자 난수표의 5열 바깥에 존재함으로써, 存而不在의 상징이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불러일으키

는 죽음과 공포의 상징이 된다. 결국 해독된 결과를 현실 속에서 확인하는 것만이 난수표의 확고한 가치를 보증해줄 수 있다. 그러나 수사의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 최진은 그 수수께끼의 구멍에 정확히 ‘S국장’을 위치시켜줄 확증이 필요한데, 가능한 방법은 단 하나, 그를 변장된 목소리의 현장에서 체포하여 Z의 실체를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그의 목소리의 도청만이 그의 위치를 확인시켜줄 뿐, 수사관들이 덮친 목소리의 현장은 매년 텅 비어 있다. 과학수사의 한계가 드러나는 지점이다.

이즈음 서울의 거리는 Z의 지시로 일본에서 들어온 초강력 페스트균 즉 ‘보이지 않는 존재’가 위력을 떨치게 되어, 지하에 숨어있던 쥐들이 지상으로 올라와 우글거리고, 죽은 시체들이 여기저기 “쓰레기처럼”(B, V3, 350) 널브러져 발에 밟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소설이 처음 시작하던 때부터 등장했던 부패의 악취와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농작물로 상징되던 해체와 죽음의 위기는 이제 극점에 달해 끔찍하고 소름끼치는 공포의 엽기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있다. 그런데 해결책이 나타났다. 최진을 비롯한 수사관들의 노력으로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버리자, Z와 혈맹관계를 맺고 있던 다비드 김은 여권과 이만달러와 함께 안전한 출국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그를 죽이겠다고 최진에게 제안한다. 그리고는 치밀한 계획으로 Z를 암살한 다음, 그의 피투성이 시체를 “쓰레기통”에 넣어 안정국 건물 옥상에 내버린다.

여기서 단어 ‘엽기’에 잠시 주목하자. 앞서 『최후의 증인』의 경우 작가는 광란에 사로잡힌 살인행위의 잔혹성을 ‘엽기적’이라 불렀다. 그러나 『제5열』의 경우, 마지막의 페스트 장면은 오히려 2000년대 대중에 소통되는 독특한 ‘엽기’ 미학 현상에 더욱 가깝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이것은 주체의 자율성을 위협하는 상상적 타자의 소름끼치고 끔찍한 공포를 극도로 비하된 형상화를 통해 배출해버리는 무의식적 반응, 다시 말해 위협받는 존재의 경계를 지키고자 하는 무의식적 반응이다.²³⁾ 페스트에

감염된 쥐들의 시체들 사이에 쓰레기처럼 내버려진 Z의 시체는 보이지 않는 세균의 침투성이 내포하는 혼돈의 위기, 달리 말해 개체의 경계를 모두 허물어 하나의 거대한 통합체로 융합해버리려는 전체주의적 폭력에 대한 강렬한 공포와 저항의 무의식적 상징으로 읽힌다. 여기서 공포는 곧 위기감과 저항의 다른 모습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 주체와 그를 삼켜버린 융합적 전체 사이의 균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것은 다비드 김이 Z를 살해하기로 결심하는 동기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이번 일에서 손을 뗄 것을 선언하고 자신이 한국을 무사히 빠져나가도록 도와줄 것을 Z에게 요구하지만 단호하게 거절당할 뿐만 아니라 그에 의해 암살당할 위기에 처하기까지 한다. 절대적 명령자였던 Z와의 관계가 어떤 균열도 허락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혈맹”이 아니라 “청부”에 의한 단순 ‘계약관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비드 김에게 명백해지고, 그들의 파기된 계약관계는 이제 목숨을 내건 결투라는 수평적 관계로 급변한다. 그는 Z에게 조직의 일원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지 말 것을 선언한다(B, V3, 221). 그리고는 “답답하던 무엇에서 해방된 듯한 기분”(B, V3, 228)에 홀가분함을 느낀다. 그가 Z의 완전장악에서 벗어나 마침내 그의 살인기계가 아닌 한 인간, 즉 자율적인 주체가 되었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나치며 하는 말인데, 다비드 김이 이 일에 회의를 품게 된 것은 장연기의 딸을 인질로 잡은 것에 “수치심”을 느끼고 그녀를 ‘제 마음대로’ 살려주는 ‘자의적’이고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는 순간부터이다.

23) 이와 관련하여 크리스테바의 ‘abjection’ 이론을 참고하기 바란다(줄리아 크리스테바, 서민원 옮김, 『공포의 권력』, 동문선 2001).

4. 1980년대를 향한 열림

이제 다비드 김의 각성과 Z와 최진의 죽음에 대한 해석을 정리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앞의 두 인물 사이의 밀착된 “혈맹” 관계의 균열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일으키는 혼돈의 위기를 적극적으로 타파하는 주체 출현의 상징으로 보인다. 이때 혼돈의 위기는 무엇보다 주체의 내면을 장악하고 그의 자율성을 결박함으로써 움짱달썩할 수 없는 공포로 몰아넣는 타자의 지배, 즉 주체에 ‘내재화된 강력한 타자’에 의한 내부로부터의 장악과 그의 자율성 박탈의 위기로 해석된다. 그런데 정치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1970년대 ‘국민총화’와 ‘민족주의’ 시대의 ‘자기검열’은 바로 그 내재화된 엄청난 타자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힌 위축된 주체의 행동이라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비드 김의 마지막 행보는 『최후의 증인』에서 자괴감에 휩싸인 오형사의 위축된 모습과 전적으로 대조되며, 최진의 죽음은 오병호의 경우처럼 삶의 욕구를 추구한 것에 대한 비판적 응징으로 동등하게 해석될 수 없다. 『제5열』의 결말은 긴급조치시대에 들어서며 소극적 ‘자기검열’로 움츠렸던 한국대중이 새로이 꿈틀거리는 보이지 않는 심적 기류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1978년 12.12 총선은 대중의 심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대중의 심적 변화와 관련하여 이 소설은 두 가지 사실을 암시한다. 그것은 무엇보다 80년대 주체의 모습을 짐작하게 한다. 복수심과 승부욕에 불타올라 냉철함을 잃고는, 급기야 아내와 이들을 생각하는 소시민의 모습으로 무기력하게 파멸해버리는 최진과는 달리(소시민의 삶은 여전히 비판적이다), 승리자 다비드 김은 스스로 속박에서 벗어나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냉철한 판단력과 집중력을 끝까지 잃지 않는 주체이다. 그는 건장한 육체를 갖고 있고 인정에 매여 허둥대지 않으며 페어플레이

와 계약의 준수를 목숨만큼 소중히 여기는 자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세계를 향해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도 지니고 있으며, 자유를 갈구한다. 이러한 주체의 모습은 비록 70년대 소설에서 악과 파괴의 위협적인 화신으로 그려지지만 80년대 대중이 모색하게 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체의 모습이 아닐까. 바로 그들이 권력자에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인권과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며 한국의 민주화를 쟁취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 컴퓨터에 눈을 뜨고, 1980년대 추리문학의 장을 더욱 확장시켰다.

호자들은 이러한 해석에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5열』에 대해 언론은 1988년 12월에 가서야 비로소 언급하기 시작한다. 이 작품에 영감을 받아 정치드라마를 만들 계획이 컸다는 기사가 뜬 것이다.²⁴⁾ 그들이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침묵한 이유는 너무도 명백해 보인다. 그것은 이 작품이 차후에 10.26에서 제5공화국 태동까지의 과정을 상상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품의 전체 흐름에 유리된 채 단순히 상상과 장면기 사이의 성공적인 정권이양으로는 그 모든 과정이 연상되지 않는다. 그들은 이 작품 속에서 무엇보다 독재자가 쓰러지는 장면을 보았다. 그것은, 이 드라마의 기획이 말해주듯, 독자와 텍스트의 만남 속에서 ‘작자의 의도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생성되는 독서효과이다. 그리고 그 효과의 핵심은, 필자가 보기에, 바로 다비드 김과 Z 사이의 균열에 있으며, 그 암살 주체는 차후에 나타난 역사 속의 실제인물이 아니라, 독서의 현장에, 각각의 독자 내면에 살아있는 저항하는 상상적 분신이다.

이 해석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 쪼개진 주체의 한 형상에 주목하려 하는데, 그것은 극렬한 대치국면을 연출했던 다비드 김과 최진을 포갠 때 드러나는 흥미로운 무의식적 구조 때문이다. 이들을 분신 관계로 해석하

24) 1988년 12월 9일자 『동아일보』 기사, 「MBC, 5공태동과정 드라마로」.

기 위해 이들이 모두 아프리카를 동경하고 있고, 각진 턱에 긴장한 체격의 유사한 외모를 갖고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용의주도하고 과학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점들을 구태여 들지는 않겠다. 그러나 이것만은 떠올리고 싶다. 이 두 인물은 모두 효자들인데, 어머니 없는 한 명은 아버지에게 대한 효심으로, 아버지 없는 다른 한 명은 어머니에 대한 효심으로 가슴이 뜨겁다. 그런데 최진이 마지막으로 홍콩까지 다비드 김을 쫓아간 이유는 아버지를 죽인 자를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미 다비드 김이 그를 대신하여 Z를 죽음으로써 복수가 이뤄졌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 응징이 완결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 최후의 응징은 다비드 김이 이번에는 최진을 사살함으로써 완결 짓게 될 것이다. 놀라운 결말이지 않은가. 최진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된 이유는 그가 아버지를 죽게 내버려두었다는, 죽게 했다는, 더 적극적으로 말해,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이었다. 모든 수사가 끝난 시점에서 수사관이 범인추적의 명분으로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야기의 흐름은 그가 아버지를 죽인 진 범으로 자기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지목하고 있음을 암시해준다 — 마치 오이디푸스왕이 결국 라이오스를 죽인 범인이 그 자신이었음을 밝혀내듯이. 이 소설은 아버지의 피살과 아들의 복수의 결의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복수심에 불타던 최진이 피살되고, 그것은 아들을 둔 한 아버지의 피살로 연출된다. 이것은 이 이야기의 저변에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시나리오가 무엇인지를 말해준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버금가는 권위자를 암살하고 우뚝 살아남은 다비드 김은 그러한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는다. 최진이 쓰러질 때 그의 눈앞에 쏟아지는 눈부신 햇빛은 소설을 온통 뒤덮었던 자욱한 안개가 Z의 죽음으로 모두 걷혔음을 암시한다. 그것은 다비드 김이 가엾게 죽은 어머니를 그리며 그토록 열망하던 아프리카의 작렬하는 태양을 떠올린다. 그가 진실로 그 상상의 낙원으로 돌아간 것일까? 아마도 그것은 오직 최진만이 누릴 상상적 몫일 게다. 다비드 김

은 이번의 실패로 거액을 챙기지 못했으므로, 꿈의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새로운 질서를 찾아 실존의 거친 망망대해를 헤쳐가야만 한다.

이 두 인물이 구성하는 무의식적 구조는 정의가 아닌 폭력이 그리고 자율이 아닌 강압이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려 할 때 그에 대한 저항이 어떤 무의식적 환상의 형태로 재현될 수 있는지 한 예를 보여준다. 다비드 김은 폭력의 화신인 Z의 명령에 절대복종하는 살인기계의 모습을 통해 폭압적인 아버지에 의한 속박이 라캉의 ‘상상계’에서 벌어지는 ‘팔루스적 어머니’와의 융합관계와 유사한 형태로 환상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폭압적 아버지의 표상인 Z의 살해는 융합관계의 단절의 형태를 띠으로써 ‘상징계’ 질서의 회복과 자유로운 주체출현의 국면을 보여줄 수 있었다. 한편, 죄책감에 사로잡힌 체제수호자 최진은 죽음으로 표상되는 ‘상상계’ 속으로 끝내 함몰됨으로써, 범인추적의 원동력인 죄책감이 오이디푸스의 것이었음을 차후에 정당화시켜준다. 여기서 체제수호의 의지와 죄책감은 금지된 욕망의 다른 목소리이다. 눈부시게 작렬하는 태양아프리카의 비전에 영원히 포획되어버리게끔 최진을 유도하는 다비드 김의 마지막 행보는 理想의 상상적 영역으로 회귀하려는 무의식적 욕망의 실현을 위한 욕동의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최진의 죽음 장면에는 이상에 도달하려는 다비드 김의 욕망, 즉 절대자유의 꿈이 분출한다. 죽음의 위협에서 해방된 자에게 그것은 찬란한 희망이다. 삶과 죽음의 문턱에서 체제수호의 영웅은 무의식적, 오이디푸스적 범죄를 죽음으로 지拂한 반면, 폭압적 아버지에 반항한 범죄자는 복원된 질서 속에서 자율적 주체로 거듭 태어났다. 두 분신의 엇갈린 운명은 결국 주체의 자율성은 건전한 ‘상징계’의 질서 속에서만 획득될 수 있음을 암시해준다. 이러한 해석은 필자가 효심과 죄책감으로 무장된 체제 순응적 존재의 죽음을 통해 거듭 태어난 승리한 반항자에게서, 자유와 권리를 갈망하는 80년대 대중의 어떤 모습을 엿보고자 했던 관점과 조응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성중, 『최후의 증인』(1974) 上, 下, 남도, 1993.
『제5열』(1978) 1, 2, 3, 남도, 2009.
- 「열올리는 추리문학」, 『경향신문』 1975년 1월 18일 5면.
「朴대통령 大麻草 흡연자 最高刑을」, 『경향신문』, 1976년 2월 2일, 1면.
「大麻草 所持에 死刑까지」, 『경향신문』, 1976년 3월 3일, 1면.
「推理소설, 韓國學분야 文庫 人氣 높아」, 『경향신문』, 1978년 5월 10일 5면.
「뿌리내리는 추리문학」, 『동아일보』, 1979년 12월 12일 5면.
「추리소설 붐이 인다」, 『매일경제신문』, 1984년 3월 15일 9면.
「오싹한 여름, 추리소설 잘 팔린다」, 『동아일보』, 1985년 8월 10일 10면.
「국내 추리문학 기지개」, 『경향신문』 1987년 1월 10일 6면.
「MBC, 5共태동과정 드라마로」, 『동아일보』, 1988년 12월 9일 16면.

2. 논문과 단행본

- 고성국, 「1978년 12. 12 총선. 유신체제 붕괴의 전주곡」, 『역사비평』 통권 18, 역사비평사, 1992, 61-67쪽.
- 김민배,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역사비평』 통권 32, 역사비평사, 1995, 89-103쪽.
- 김창남, 「‘유신문화’의 이중성과 대항문화」, 『역사비평』 통권 32, 역사비평사, 1995, 121-132쪽.
- 김호기, 「박정희 시대와 근대성의 명암」, 『창작과 비평』 통권 99, 1998, 창비, 93-111쪽.
- 마인섭, 「유신정권의 통치행태와 중화학공업화 : 정권의 사회적 기반과 통제메커니즘」,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 22 n°2,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0, 111-146쪽.
- 박유희, 「한국 추리서사에 나타난 ‘탐정’ 표상-“한국추리서사의 역사와 이론”을 위한 시론」, 『한민족문화연구』 제 31집, 한민족문화학회, 2009, 397-434쪽.
- 방인근, 『文藝創作講座. 小說研究』, 서리별예술학교출판, 1956.
- 백휴, 『김성중 읽기』, 남도 출판사, 1999.
- 송명희, 「김성중의 추리소설과 섹슈얼리티」, 『한국문학비평과 이론』 제16집, 한국문학비평과 이론학회, 2002, 43-68쪽.

- 송명희, 「김성종의 초기소설 연구」, 『한국문학비평과 이론』 제37집, 한국문학비평과 이론학회, 2007, 301-327쪽.
- 신병식, 「박정희 시대의 일상생활과 군사주의 -징병제와 ‘신성한 국방의 의무’ 담론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통권 72호, 한국산업사회학회, 2006, 148-172쪽.
- 에르네스트 만델, 이동연 옮김, 『즐거운 살인』, 도서출판 이후, 2001.
- 이정옥, 「1950-60년대 추리소설의 구조 분석」, 『현대문학이론연구』, vol. 15, 현대문학이론학회, 2001, 183-202쪽.
- 이정옥, 임성래, 「변용 추리소설의 소설적 의의」, 『대중서사연구』 제14호, 대중서사학회, 2005, 281-306쪽.
- 전재호, 「박정희 체제의 민족주의: 담론의 변호와 그 원인」, 『한국정치학회보』 vol. 32, n°4, 한국정치학회, 1998, 89-109쪽.
- 정희모, 「추리기법의 서사화와 그 가능성 -김성종의 <최후의 증인>에 나타난 추리기법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vol. 10, 한국현대소설학회, 1999, 411-430쪽.
- 줄리아 크리스테바, 서민원 옮김, 『공포의 권력』, 동문선, 2001.
- 최애순, 『이청준 소설의 추리소설적 구조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토마 나르스작, 김중현 옮김, 『추리소설의 논리』, 예림기획, 2003.

Abstract

The fifth column by Kim Seong-jong
-crevices in self-censorship under the Youshin regime-

Choe, Ae-Young

It is an irony of 1970s that a Korean detective narrative formed under the Youshin regime, time of emergency measures, military dictatorship and self-censorship. This paper proposes to analyze internal crevices in the narrative of two novels written by KIM Seong-jong, representative mystery writer of 70s-80s : *The last witness* and particularly *The fifth column* to examine how such irony was possible. For this, I observe the sociocultural background which allowed the detective narrative to establish in Korea, as well as the evolution from intimidation in self-censorship to emergence of a new individual and to personal recreation. Then I examine how the self-censorship is represented in *The fifth column* and what effects the crevices included in its narrative strategy make during the reading. Finally this paper proposes to see in this text the emergence of an autonomous political subject and an unaware overture to a current of political wishes showed by the 80s' mass. (key words : self-censorship, detective narrative, Youshin, Kim Seong-jong, *The last witness*, *The fifth column*)

┃ 위 논문은 2010년 04월 30일 투고되었고, 심사를 거쳐 05월 25일 게재가 확정되었음.